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7년 7월 발행 (제 87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시지 '기름 부음받은 것은 끊기다' 예레미야
- ◎시대를 깨닫는 '에큐메니칼 운동. 쿠리스라무' H. F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기름 부음받은 것은 끊기다' 예레미야

오늘은 "기름 부음받은 것은 끊기는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하고 싶습니다. 종말의 날에 성령이 교회에서 끊어 버린다,라고 일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언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9: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텍스트에서는 기름 부음받은 것이 끊기는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받은자가 누구인가? >

그런데, 여기에서 소박한 의문이지만, 기름 부음받은 것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의 대답은 근무까지도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받은 것이며,이 예언대로 군주로서 예루살렘에왔다지만, 백성 의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끊겨 버렸습니다.

확실히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성취 된 것입니다. 그런데,이 것은 사실입니다 만, 또 다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하면,이 예언은 2 배 이를 것으로 보인다 때문입니다. 즉,이 '기름 부음받은 것은 끝없는 것 "이라고 예언은 그리스도의 첫 오순절에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시 성취,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의 예언은 2 중으로 성취>

많은 종말에 관한 예언은 2 배 이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에 관한 예언이 있다고합니다.

마태복음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4: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성전의 붕괴에 관한 예언은 2 배의 예언이며, 2 차례에 걸쳐 성취하는 것이 많은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즉,이 성전의 붕괴는 1 주 예수의 첫 강림의 시대에 성취가 2 종말의 날에 다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그대로이며, 우리는 종말의 날에 다시 성전의 붕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기름"부음받은 자와 표현되고 있는가? >

방금 다니엘서의 텍스트로 돌아갑니다.

다시이 텍스트를 자주 볼 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 구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빛 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는데,이 곳에서는 각별히처럼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름 부음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말에 관해서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 나 의도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되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받은 것과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

성경을 읽을 수있게하는 것, 그것은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 인 것입니다. 다음을보세요.

요한일서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쓰여져있는 "거룩한 기름 부어"라고 분명히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이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다니엘의 70 주 기사에서 "기름 부음받은 것은 끊기는"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가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1 첫 오순절에 그리스도 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백성 사이에서 끊긴 것

2 재림의 날에 기름 부음받은 것이다 성령이 교회에서 끊긴 것

이 두 가지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종말의 날에 교회에서 끊기는 것은 다름 예언되어있다>

종말의 날에 성령이 끊기는 등이라고하는 것은 갑자기 믿기 어려운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자주 성경을 읽는다면 이 것은 어떤 부분을 통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2: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에는 성령이 교회에서 제거하는 일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이 구절을 통해 이야기하고있는 것은 이러한 종말의 날입니다.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인 유대인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유대인들은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죽였습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 그리스도는 끊겼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날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기름 부으신 성령은

교회에서 쫓겨나 끊길 것입니다.

같은 역사가 두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도 한 성령을 쫓아? 그런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 성경은 배도에 대해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는 분명히 종말의 날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성령에 반대 배교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받은 것이다 성령이 끊길 날이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그리스도>

이는 기름 부음받은 자이다 성령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다음의 종말 부분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집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에서 쫓겨나 날이 올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7 번째 교회, 종말의 날의 교회 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 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고 만다. 이것이 배교이며 기름 부음받은 것이 끊길 것입니다.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서는 바람이 억제되어 분사하지 않도록되어있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람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하도 바람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바람이 억제되어 분사 않게 된다는 것은, 즉 성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보고하자.

요한계시록 16:12 ○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프라테스 강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는 비유 의미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인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 흐르는 강 성령의 강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로 교회에서 성령이 쫓겨나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온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받은 것, 성령이 교회에서 끊긴 후 교회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다시 시작 부분의 텍스트를 살펴 보자. 다니엘 9:26 그 육십이 주 후에 기름 부음을받은자는 끊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곧 다가올 군주의 백성이 마을과 성소를 파괴한다. 그 끝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끝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황폐이 정해져있다. 여기에는 "곧 다가올 군주의 백성이 마을과 성소를 파괴한다."로 다가올 군주, 즉 적 그리스도가 성전 즉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 인 교회를 파괴 할 수 그려진 있습니다. 이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서 다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쫓아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의 중간에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 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선언 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독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떤 굉장한 교회의 배교를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이 기사에서 추측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교회가 맑아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 전에 먼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철저한 모독과 불신과 비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신화이며,이 사람은 사기꾼이며, 명성 교회의 상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홍수가 발생하고 끝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황폐이 정해져있다."

이날 악령의 홍수가 교회를 덮을 수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배교 때문에 성령을 쫓아 내고 대신 악령의 부흥의 홍수에 휩쓸 것입니다. 이 날은 그날 즉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겼다 날의 재현입니다.

그날 배교 그리스도를 욕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극악인 바라바의 석방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며, 말씀입니다. 즉, 종말의 날에도이를 재현하고 사람들이 기름 부으신 성령을 쫓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적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좌에 맞아 더욱 악령의 홍수 귀신 부흥 교회에 영입입니다.

배도의 교회가 귀신의 홍수에 휩쓸리는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계를 비롯한 교회에서 행해지고있는 베니, 비루하몬 등 그릇의 부흥은 귀신의 부흥입니다.

<십자가는 재현>

교회가 배도 한 그리스도를 부정하게된다? 그런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재현하는 것은 종말을 명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1: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에 '기름 부음받은 분 "이신 주님이 다시 배교의 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될 수 명시되어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는 지금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 십자가에 못되는 것은 기름 부으신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배교 하나님의 눈에는 소돔과 이집트처럼되어 버린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 이신 성령에 대해 모든 모독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이며 비 과학적 거짓말이라고합니다. 또한 부활과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광신적 인 비난됩니다. 또한 성령은 귀신 취급을 당하고 교회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요, 전 날 갈보리 십자가가 재현 기름 부으신 다시 배교의 백성 사이에서 끊기는 것입니다. 이 것을 예언 다니엘서는 "기름 부음받은 것은 끊길"고 말했다 있는지 알아 봅시다. - 이상 -



다시 십자가에 달리 기름 부음받은 주

시대를 깨닫다 "에큐메니칼 운동. 쿠리스라무" H.F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어떤 때일까요.

20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500년이며, 기념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연고지인 독일에서도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에는 종교 개혁을 기념한 독일 개신교 협의회가 개최하는 '키루헨타쿠 "베를린과 부이트 텐 버그에서 열린 세계에서 종교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바마 전 미 대통령, 멜린다 게이츠 (빌 게이츠 부인)도 참석 연설하며, 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 등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참석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내용은 종교 개혁 기념이면서 이교적 에큐메니컬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황과 릭 워렌을 비롯한 개신교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교류하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큰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연고 독일에서 5명 중 1명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합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하는 것을 비롯해 전혀 성경적이지 아닌 본래 개신교와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에큐메니컬 운동은 점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이교도와 에큐메니컬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종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도적이며 매우 평화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그늘에 가려 이교도 간의 에큐메니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쿠리스라무"라는 것입니다. 쿠리스라무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혼합한 일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에서 나온다는 전제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1985년 당시 요한 바오로 교황이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황 프랜시스도 수많은 무슬림과의 합동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맨해튼의 세인트 패트릭 교회의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자비로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란 용어는 이슬람교의 호칭입니다.

교황뿐만 아니라, 많은 개신교의 유명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상호 이해의 이름의 원래 이슬람과의 합동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교리와 그리스도가 서서히 동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무슬림과 그리스도의 폭력이 증가를 경험하고 종교적인 해결책으로서 이슬람 키리 토 교의 합동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운동이라는 것이 행해져 이슬람교도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인식하에 교대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하나님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서는, 그것은 진실일까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있는 성경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 Berean Call 에서 McMahon 씨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슬람 이전의 무하마드의 쿠레이슈 족이 숭배했던 많은 아랍의 우상 신 중 최상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라고하는 것으로, 무하마드가 일신교의 길을 열었다 고합니다. 아라비아에서 발견 된 고고학적 증거에서 이슬람 종교의 근원이 달 신의 숭배임을 입증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초승달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는 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슬람의 금식 시간인 라마단이 초승달 때 시작하여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검은 돌에 키스하고 메카를 향해기도하고, 사원을 돌거나, 사파와 마루아 언덕 사이를 달리는 등은 이슬람 이전 달 신의 의식과 우상 숭배의 의식이며, 이슬람교 의식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기독교와 전혀 다른 뿌리로 간주되는 것은하지 않는가? 또한 기독교의 하나님 아버지와 이슬람의 하나님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복음 3:17 에 "또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라는 아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주권 안에 자식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차이 지요.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또한 합동기도하는 것도 불가능 하겠지요. 그리고 만약 합동기도한다면 그기도는 어디로 가고있는 것일까요. 구세주 그리스도 빼고 믿음은 진리에서 벗어나 더 이상 다른 이교도의 종교로 변모하고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6 ○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1: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1:8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지금 교란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입니다. 때를 분별해야합니다.



교황과 이슬람